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8. 6. 29.(금) 12:00
배포일시	2018. 6. 29.(금) 09:30
담당부서	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
담당자	실장: 최바울(042-366-7301) 서기관: 이희길(042-366-7314)



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

- 통계청, 29일(금) 제 4회 「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」 개최 -

-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‘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’을 위해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.
- 통계청(청장 황수경)은 「한국삶의질학회」(회장 한준)와 공동으로 6월 29일(금) 대전 통계센터에서 「제 4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」을 개최한다.
 - 이 포럼은 정부기관, 학계,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삶의 질 측정 및 정책 활용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, 2015년부터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되고 있다.
- 이번 포럼의 주제는 ‘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’으로, ‘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와 광역 및 기초단체 수준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‘지역사회지표’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.
 - 오전세션에서는 “국민 삶의 질 측정결과의 요약 방법과 영역별 종합지수 작성 방안” 소개와 “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 활용 방안”에 대해 논의하고,



동 자료는 ‘출처 표시’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- 오후세션에서는 “지역사회지표의 작성 현황과 정책적 활용 사례”를 공유하고, “지역사회지표의 효과적인 정책적 활용방안”에 대해 토론한다.
- 특히,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영역별 종합지수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고, 국민 삶의 질 개선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‘국민 삶의 질 지표 요약 및 영역별 종합지수 작성 방안’을 발표할 예정이다.
- 이는, 작년 3월 ‘GPD를 넘어서,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’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전시킨 것으로, 통계청이 자료를 제공하고 「한국삶의질학회」에서 영역별 종합지수를 작성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(붙임3 참조).
- 또한, 지방분권화 추세를 고려하여, 국가 수준에서 나아가 지역 수준에서의 삶의 질 측정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.
- 황수경 통계청장은 “이번 ‘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’에서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올해 말 개최될 ‘제6차 OECD세계포럼 (2018. 11. 27.~11. 29., 인천 송도)’에서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.”고 말했다.
- 이번 제6차 세계포럼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, ‘미래의 웰빙(The future of Well-being)’이라는 주제로 “디지털 전환, 거버넌스의 역할변화, 기업 활동과 웰빙”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.

【붙임 1】 포럼 개요.

【붙임 2】 발표 내용 요약.

【붙임 3】 국민 삶의 질 영역별 종합지수 작성 결과요약. 끝.

붙임1 포럼 개요

- 목 적
 -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 모색
 - 광역·기초단체 작성 지역사회지표 활용 사례 공유 및 정책적 활용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 도출
- 주 제 : 「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」
- 일 자 : 2018. 6. 29.(금) 09:30~17:00
- 주 최 : 통계청 통계개발원, 한국삶의질학회
- 장 소 :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실
- 참석자 : 관련부처, 학계, 민간 전문가 등 약 120명
- 프로그램 구성 : 오전세션, 오후세션
- 주요의제

(오전세션) 정부의 국정목표가 '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'으로 변화함에 따라,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삶의 질 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

(오후세션) 지방 분권화 추세를 고려하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사회지표 작성 현황과 정책적 활용사례를 공유하고, 실행과정에서 직면한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

□ 프로그램 일정표

개회

09:30~10:20	등록 및 개회	 국제회의실 09:30~10:20
09:30~10:00	·행사등록	
10:00~10:10	·개회사 황수경 통계청장	
10:10~10:20	·축사 한준 학회장(한국삶의질학회)	

오전세션

10:20~12:30	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	 국제회의실 10:20~12:30
	주제1.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요약방법과 종합지수 작성	
10:20~10:50	- 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요약방안	발표 이희길 서기관(통계개발원)
	-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영역별 종합지수 작성	발표 한준 교수(연세대)
10:50~11:10	주제2.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 활용 강화방안	발표 이용수 박사(KDI)
	종합토론	좌장 배영수 원장(통계개발원)
11:10~12:30	구교준 교수 (고려대) 오연호 대표 (오마이뉴스) 정해식 센터장 (한국보건사회연구원) 국무조정실 최바울 실장 (통계개발원)	

오후세션

14:00~14:40	지역분권에 따른 지역사회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	 국제회의실 14:00~17:00
	주제1. 지역사회지표의 작성현황과 정책적 활용방안	
14:00~14:40	- 해외 지역사회지표 작성현황	발표 황선재 교수(충남대)
	- 커뮤니티 웰빙 조사연구를 통해본 지역사회지표의 활용방안	발표 이승중 원장(서울대 행정대학원)
	주제2. 지역사회지표의 정책적 활용사례	
14:40~15:20	전북의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 방안	발표 김동영 박사(전북연구원)
	행복실감 부평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연계 방안	발표 홍성호 교수(공주대)
15:20~15:30	휴식(다과 및 커피)	
	종합토론	좌장 유성렬 교수(백석대)
15:30~17:00	김영식 사무국장 (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) 박노동 박사 (대전세종연구원) 박승규 박사 (한국지방행정연구원) 조복현 단장 (전 부평구 비전기획단)	

붙임2 발표 내용 요약

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

- (국민 삶의 질 측정결과 요약방안) 현재 12개 영역 80개 지표로 구성된 '국민 삶의 질 지표'의 간결한 해석을 위해 다양한 지표 요약 방안 소개(지표나열법, 종합지수, 대표지표)
- (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영역별 종합지수 작성) 영역별 종합지수 작성을 위한 가중치 부여 연구 결과를 소개
 - 4가지 가중치 적용 방법 (동일가중치, 내부 전문가 가중치, 외부 전문가 가중치, 시뮬레이션)을 비교한 결과, 가중치 부여방식에 관계없이 시계열 추세가 안정적인
 - 동일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작성한 영역별 종합지수 결과 발표
- (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 활용 강화 방안) 지표를 활용한 정책 수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제언

지역분권에 따른 지역사회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

- (지역사회지표의 작성현황과 정책적 활용방안) 지역사회지표의 의미 및 기능을 소개하고, 국내외의 지역사회지표 작성현황을 공유
 - (해외 지역사회지표 작성 현황) Quality of Life in Jacksonville, Sustainable Seattle, Oregon Benchmarks 등 해외의 다양한 지역사회지표를 소개하고, 각 지역사회지표가 가지는 시사점 논의
 - (커뮤니티 웰빙 조사연구를 통해 본 지역사회지표의 활용방안) 국내에서 진행된 커뮤니티 웰빙 조사연구에 대해 소개
 - 커뮤니티 웰빙 조사 연구 방법 및 사례 분석 결과

- (지역사회지표의 정책적 활용사례) 전라북도와 인천시 부평구의 사례로 본 지역사회지표의 정책적 활용 사례 공유
 - (전북의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 연계 방안)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'전북형 행복지표'에 대한 소개 및 활용사례
 - 전북형 행복지표 개발 연구 과정 및 체계 설명
 - 전북도민의 행복지표 결과 발표
 - 분야별 정책연계 방안 및 활용 사례 공유
 - (행복실감 부평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 방안) '행복실감 부평 연구'의 과정 및 활용 방안 소개
 - 연구의 의의 및 지표개발 과정 소개
 - 부평구 행복실감 조사 결과 발표
 - 정책 연계 방안 및 향후 추진 과제 논의

1. 국민 삶의 질 지표 체계

대분류 (객관 주관)	중분류	객관적 지표(56)	주관적 지표(24)
소득·소비·자산 (6, 2)	-	1인당 GNI(+), 균등화 중위소득(+), 균등화 중위소비(+), 가구평균 순자산(+), 지니계수(-), 상대적 빈곤율(-),	소득만족도(+), 소비생활 만족도(+)
고용·임금 (5, 1)	-	고용률(+), 실업률(-),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(+), 근로시간(-), 저임금근로자비율(-)	일자리만족도(+)
사회복지 (3, 0)	-	공적연금가입률(+), GDP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(+),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(-)	
주거 (4, 1)	-	1인당주거면적(+), 최저주거기준충족 가구비율(+), 통근/통학소요시간(-), 주거비용(-)	주거환경 만족도(+)
건강 (7, 2)	건강상태	기대수명(+), 고혈압 유병률(-), 당뇨 유병률(-), 건강수준별 기대여명(+)	주관적건강평가(+), 스트레스인식정도(-)
	건강행위 및 환경	비만율(-), 규칙적운동 실천율(+),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(-)	
교육 (7, 2)	교육기회	유아교육 취학률(+), 고등교육 이수율(+), 평생교육참여율(+), 학업중단율(-)	
	교육자원	학생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(-)	
	교육성과	PISA백분위순위(-), 대졸생 취업률(+)	학교교육의 효과(+), 학교생활 만족도(+)
문화·여가 (4, 2)	여가시간 및 활용	평균여가시간(+)	여가활용 만족도(+),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(-)
	문화활동	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(+)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(+), 문화여가 지출비율(+)	
가족· 공동체 (5, 2)	가족관계		가족관계 만족도(+)
	가족형태	한부모가구 비율(-), 독거노인비율(-)	
	사회적 관계	자살률(-), 사회적 관계망(+)	
	공동체 참여	사회단체참여율(+)	지역사회 소속감(+)
시민 참여 (2, 5)	정치참여	투표율(+)	정치적 자기역량 인식(+)
	시민적 의무	자원봉사활동참여율(+)	시민의식(+)
	시민적 권리		부패인식지수(+)
	신뢰		대인신뢰(+), 기관신뢰(+)
안전 (7, 2)	범죄	강력범죄 발생률(-),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(-), 자기보고 범죄피해율(-)	사회안전에 대한 평가(+), 아간보행에 대한 안전도(+)
	사고	아동안전 사고사망률(-), 산업재해율(-), 화재발생건수(-), 도로사망률(-)	
환경 (6, 2)	환경의 질	미세먼지농도(-), 1인당도시공원면적(+)	기후변화 불안도(-), 체감환경만족도(+)
	환경서비스/ 자원관리	에너지빈곤층비율(-), 하수도보급률(+), 폐기물재활용비율(+),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(-)	
주관적 웰빙 (0, 3)	-	-	삶에 대한 만족도(+), 긍정정서(+), 부정정서(-)

주: 1) (+) 또는 (-)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

2. 영역별 종합지수 작성방법

가. 작성 개요

- (투입지표) 삶의 질 지표 80개를 모두 활용하여 시산
- (작성기간) 활용가능한 지표수를 고려하여 '06년(기준년) ~ '16년(11년간)
 - * '00년부터 지표를 구축하였으나 전체 지표수의 과반(40개)이상이 이용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인 '06년을 기준년으로 선정
- (산출방법) 기준년('60년=100)대비 증감률을 이용해 종합지수를 작성하였으며, 작성방식은 캐나다 CIW방식과 동일함.

나. 자료 보정 및 지수 산출

- (내삽) 중간에 자료가 없는 경우는 선형보간법으로 내삽(평균)
 - * 1년 주기(51개), 2년 주기(24개), 3년 주기(1개), 5년 주기(4개)
 - 기준년('06년) 자료가 없더라도, 이전의 자료가 있는 경우 내삽값 활용
- (외삽) '16년 이전의 최근 자료 부재시 마지막 실측값으로 동일하게 외삽
 - 최초 측정이 늦어 기준년('06년) 이후 자료가 없는 경우는 외삽을 하지 않고, 최초 투입 연도의 해당 영역 종합지수 평균값을 산입
- 지표의 증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긍정지표(예, 고용률)와 부정지표(예, 실업률)로 구분하여 증감률 산출
 - 기준년('06년=100) 대비 당해연도 개별지표 증감률의 산술 평균으로 산출
 - 긍정지표 증감률 = (당해연도 지표값/기준년도 지표값)×100
 - 부정지표 증감률 = {(1/당해연도 지표값)/(1/기준년도 지표값)}×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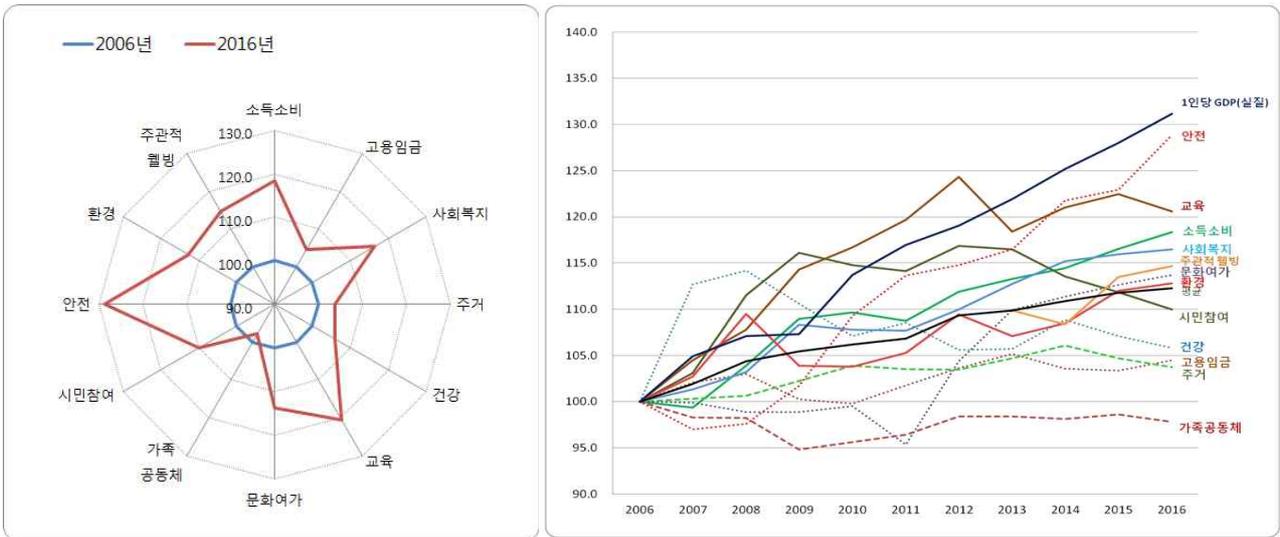
다. 가중치 산출 방법

- (가중치 작성방법) 영역(12개)별로 4가지 가중치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시산
 - (동일가중치) 영역 내 지표별 동일가중치 부여('17년 3월 시산방식)
 - (외부전문가) 외부전문가(지표자문위원, 64명)가 해당 영역 가중치 부여
 - (내부전문가) 개발원 내부(5명)의 전체 영역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
 - (시물레이션) 지표별 가중치를 3배 이내에서 임의로 부여하여 적용한 시물레이션(n=1000) 결과(5%~95% 구간값 제시)
- (최종 산출방법) 가중치 부여 방법 중에서 산출결과가 비교적 안정된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

3. 영역별 종합지수 작성결과

□ 지난 10년간(기준년 '06년(100)~'16년) 영역별 종합지수*를 보면,

- 안전(128.9)>교육(120.6)>소득·소비(118.1)>사회복지(116.5) 영역은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,
- 가족·공동체(97.8)<주거(103.7)<고용·임금(104.5)<건강(105.8)은 저조



* 영역별 종합지수 시산에 활용된 지표값은 기준일이 2017. 12. 31. 이며, 국민 삶의 질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지표값(2018. 5. 20. 기준)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□ (가중치 방법별 결과비교) 가중치 부여방식에 관계없이 영역별 종합지수의 시계열 추세(trends)는 비교적 안정적 결과를 보임

- 특히 동일가중치, 전문가 및 내부자의 종합지수는 전(全) 영역에서 시계열 패턴이 견고(robust)하게 나타남
- 일부 영역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의 범위(5%~95%)가 너무 넓거나 다른 시산결과가 시뮬레이션의 범위를 넘는 등 불안정한 결과도 나타남
 - 안전(범죄와 재난·안전은 별도 전문가로 구성)은 범위도 넓고(최대 범위 20.1점) 안정성이 취약해 추가검토 필요
 - 사회복지의 지표가 3개로 가중치의 영향(최대범위 : 10.1점)이 큼